

성폭력 '생존자'?

성폭력 '생존자(survivor)'는 고통과 좌절,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 라는 말에 갇히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며 삶을 일구어나가는 적극적인 주체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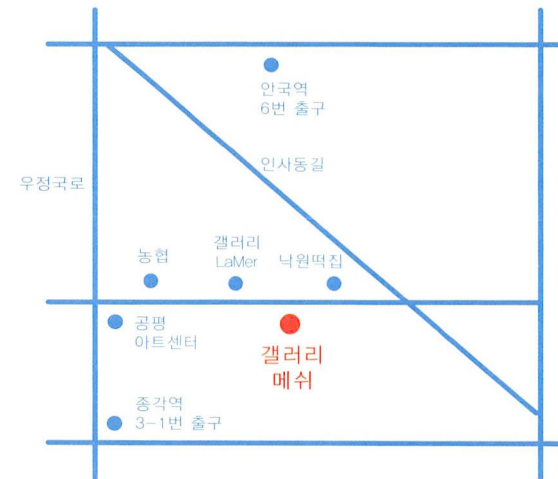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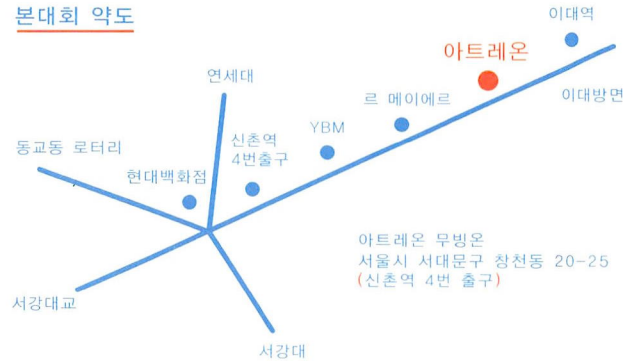
성폭력 생존자말하기대회 !

2003년부터 시작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매년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과 삶을 세상에 말하고, 이를 경청함으로써 지지와 공감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를 세상에 전함으로써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생존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변화되고, 언젠가는 성폭력 경험 또한 일상의 많은 경험 중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9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본대회 약도



갤러리 약도

갤러리 메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88-4 4층
(종각역 3-1번 / 인국역6번 출구)
(하노이의 아침 건물)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전화 023382890 이메일 speak_out@naver.com
홈페이지 http://sister.or.kr/speakout

9회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대회



말하기

2012
10/24
20시

@아트레온
무빙온

다시 보기

전시

2012
10/24~
2012
10/29

10시~
19시

@갤러리
메쉬

‘성폭력
생존자
카메라를
들고
스크린으로
뛰어들다’
기증

성폭력 생존자, 카메라를 들고 스크린으로 뛰어들다 !

언론사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성폭력 사건의 보도를 쏟아냅니다. TV와 영화는 영상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끊임없이 재현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로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자의 고통, 성폭력에 대한 공포만을 강조하는 미디어의 재현 방식을 보자면 마치 그것이 성폭력 경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게 할 것만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성폭력의 경험은 여전히 타인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자면 '힘들겠다'며 무척대고 한없이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답지 않다'며 의아해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생존자가 제작한 영상 작품은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정도,
'피해자답지 않다'는 비난도 거부합니다.

'피해자다운 피해자'여야만 공감 받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성폭력 경험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과 감정, 사건 이후의 삶, '피해자'라는 말로는 다 묶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합니다.

성폭력을 다시 보기 한다는 것

9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다시 보기>는 말하기 참여자의 영상 작품과 무대에서의 말하기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성폭력의 경험을 '다시 보기' 하는 자리입니다.

말하기대회에 참여한 생존자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 작품을 통해 지금/여기에서 다시 바라본 과거의 경험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의 말하기를 통해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삶은 변화로 가득차 있고 과거의 경험 또한 지금/여기의 나에 의해 다시 해석되는 것이기에 생존자의 이야기에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삶의 여정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시보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자의 경험과 감정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성폭력'과 '피해자'를 생각했을 때 내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두 접어두고 공감과 지지의 마음만으로 생존자의 말하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성폭력 경험을 대하는 나의 내면을 다시 보고, 생존자의 말하기를 '있는 그대로' 듣는다면 생존자를 무조건 덮어놓고 동정하던 마음도, 피해자 답지 않은 모습에 대한 의문도 점차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
생존자
그리고 나
<다시 보기>에 함께 해주세요.

말하기

일시 | 2012년 10월 24일(수)

오후 8시

장소 | 아트레온 무빙온

참여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발송

무대에서 전하는 생존자의 말하기
(영상 작품도 함께 상영됩니다)

전 시

일시 | 2012년 10월 24일(수) ~ 29일(월)

오전 10시 ~ 오후 7시

장소 | 갤러리 메쉬

생존자의 말하기 영상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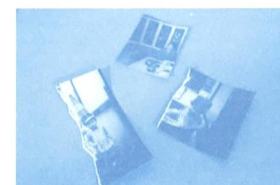
작품 | 앨리스 증후군
Alice Syndrome
작가 | 봄 Marcellina



작품 | 선영아, 미안해
작가 | 봄 Marcellina

긴 여동을 건디던 앨리스의 이야기

나를 살려준 어린 나에게 보내는 사과의 편지



작품 |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작가 | 도경



작품 | 신파적 계기
작가 | 남현

옛날 나에게 있었던 성폭행의 기억과 공간을 재현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며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다.

나에게 신파적이고 통속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내 인생과 나 자신을 구성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계기와 같은 역할을 했다.



주최: 성폭력상담소